

“네 가지 相 타파하면 일체가 무진법문”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살은 고(苦)라고 한다. 특히 요즘을 사는 현대인에게 살은 벼겁고 흥흥하기만 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우리의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편해진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4가지 상을 타파하면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이자 무진법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다음은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11월 18일 법문한 내용이다. 정리·이아은 기자

신도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존락을 떠돌며 유리결석하던 거지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도, 고향이 어떤 지도 모른 채 떠돌다가 고향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면 그 기분이 어떻까요. 아아 눈물이 흐를 겁니다.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 법문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도 그런 것일 겁니다. 부처님의 본성, 자성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육도윤회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40~50년을 논둔장님으로, 귀머거리로 살다가 부처님을 만나 이제 눈이 뜨이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 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할 때, 금강경을 읽고 또 읽어서 나와 금강경이 하나가 될 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금강경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모든 생명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 사람의 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그리고 또 나를 칭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까지 전부 부처님의 무진설법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온갖 번뇌 망상을 다 비워 버려주세요.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이가 엄마를 보면 반가워 날 뛰는 듯한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무리 금강경을 읽어도 졸음만 오고 한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업(業)이 지중하기 때문에 금강경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무겁고 업은 두껍고, 복은 가볍고 정근이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이 맑고 복이 두터운 정근이 깊은 사람은 한번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공경합니다.

인욕바라미를 성취해야

부처님이 연세가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친척이었던 코살라국의 왕이 부처님 고국인 카필라국을 공격하려 가는 길이었습니까. 중간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땀을 흘리며 앉아 있는 부처님을 보고 유리왕이 인사를 드리며 말합니다. “시원한 나뭇가지도 많은데 왜 하필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 앉아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친족의 그늘은 이 세상 어떤 그늘 보다 시원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코살라국 왕은 발걸음을 돌려 코살라 국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을 업신여겼던 과보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은 정전을 말리며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필라국의 많은 백성들

“**금강경 심오한 가르침 알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공경하며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내려놓을 때 세상 변화게 돼**”

이 코살라국에 억압당하고 잡혀가고 죽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활절신체(活截身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를 성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내는 듯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 몸을 찢는 사람에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인욕바라미의 성취입니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쟁 해결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일’ 1963년 베트남의 사이공 시내에서 틱광



지현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1977년 쟁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해인유원을 졸업했다. 이후 송광사 재무국장과 해인사 도서관장 및 승가대학 학감을 거쳐 1989년부터 부산 관음사 주지로 있다. 현재 송광사 율주,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대표이사, 두송자활후견기관 관장,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대표이사, 사단법인 동련 이사 등을 함께 맡고 있다.

득이라는 스님이 베트남전쟁과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봄비는 사거리에서 분신을 합니다. 틱광득 스님은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가만히 미동도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 분신사건을 접한 틱광득 스님은 ‘권유’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약속하세요. 하늘 한가운데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동안 내게 약속하세요. 누군가 태산 같은 증오와 폭력으로 당신을 산산이 부수더라도, 한 마리 벌레를 대하듯 당신의 삶을 짓밟더라도, 당신의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다 꺼내더라도, 형제여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닌란 걸. 오로지 당신의 사랑과 자비만이 스러지지 않고 멸함이 없으니, 증오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략)”

티광득 스님은 시를 통해 진정 나의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사실을. 아무리 멀고, 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해와 달이 우리를 지켜주듯,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원망과 미움을 갖지 말라고 타일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1989년에 노벨평화상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다름

과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의 눈을 꼭 감으면 한마디도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미움과 분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공격하는 중국 사람들을 티베트 난민과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랑을 티베트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부처님의 말씀이고 행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거기다 모든 권력을 다 주신다면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태양보다 빛나고 달보다 밝고 바다보다 넓은 그런 모든 덕성을 다 준다면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만 그렇겠습니까.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도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나를 내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이들, 실패한 이들, 범부이든 흥악범이든 그 마음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와 중생 차별 없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평등한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치는 모든 사람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 내가 해침을 당할 일이 있었습니까. 현생의 몸을 갖고서 남을 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 전생에 남을 해쳤던 업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침을 입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희망 줘야

우리는 무량 겁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원력을 세우면서 정근을 지어오란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량겁의 생에서 나는 이번 생에 태어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허허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이해 한다는 것은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편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4가지 상의 타파를 수행의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한다. 아상(我相)은 자의식,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말하죠. 내가 생기면 남이 생기고 비교하게 됩니다. 인상(人相)은 비교의식을 말합니다. 당신의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그 마음을 열등의식, 즉 중생상이라 합니다. 저 역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대인공포증이 생기는 등 그런게 다 열등의식 아닐까요.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지금 나를 부정하고, 나를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나고 모자라지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세상 누구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남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남들에게 간·쓸개를 빼놓고 살고자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상황이 달라

진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에도 권모술수를 쓰는 악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금강경에 의지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무진법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한량없는 공덕이 만들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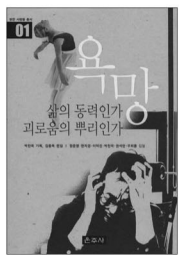
여러분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세계이고 마음이 세계입니다. 좀 더 접근하면 가정이 여러분의 세계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세계가 파괴된것 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식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며 절을 하세요. 자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수자상). 나는 중생이라는 한계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절을 세 번씩 꼭하십시오. 이것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리는 일이고, 버리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업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마음을 부처님 공덕으로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못나,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고요히 부처님과 나는 동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시오.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세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경전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이나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 연관이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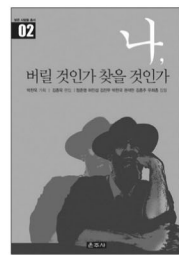
그리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만 덕을 보려는 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산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정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된 법을 이야기 하더라도 전부 정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정법을 이야기 하더라도 전부 사된 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대인(훌륭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대법이 되지만 이미 사소한 일에 집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대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야기 하고 듣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밝은사람들 총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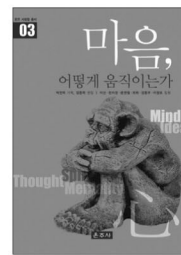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유,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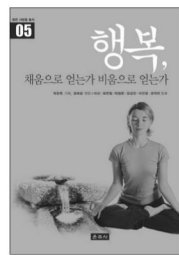
나, 버릴 것인가 찾는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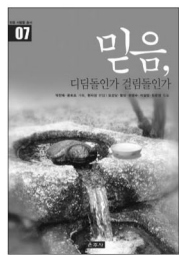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416쪽 | 20,000원



민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공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깨달음, 공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양장/388쪽/20,000원

